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3부 · 적극적 표지 10: 신앙의 균형

『신앙감정론』 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중 열 번째 적극적 표지, 인쇄 515~530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참된 감정에는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가 있다는 명제로 시작합니다. 다만 성도의 균형도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는 단서를 먼저 붙입니다. 그 근거는 성령께서 사람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전체를 새기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어서 위선자의 감정이 어떻게 치우치는지 살핍니다. 소망과 두려움, 기쁨과 슬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영혼 돌봄과 몸 돌봄, 남의 죄와 내 죄 사이에서 한쪽만 부풀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장소의 기준을 더합니다. 특별한 때에만 뜨겁고 사람들 앞에서만 뜨거운 감정은 건강하지 않으며, 참된 은혜는 샘물처럼 꾸준하고 골방에서 은밀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 표지 카드

표지 10(적극): 참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은 거짓 감정과 달리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증거인 까닭은 성령께서 사람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닮은 형상을 성도 안에 새기십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는 한 부위만 자라는 기형이 아니라 온몸이 함께 자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위선자의 감정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만 익어 있어서, 크게 불타는 곳 옆에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곳이 함께 있습니다.

📜 절별 정리

📜 1. 성도의 감정은 균형을 이룬다 — 다만 완벽하지는 않다

에드워즈는 먼저 오해를 막습니다. 성도의 균형이 이 땅에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타고난 기질의 결점 때문에, 교육이 부족해서, 그 밖의 여러 약점 때문에 성도의 균형도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위선자에게 흔한 “소름 끼치는 부조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전인적으로, 곧 사람 전체가 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점점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고 우리는 그 충만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에드워즈는 이 말을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하나에 걸맞은 은혜가 성도 안에 생긴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그러니 참된 형상에는 원형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균형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몸에 비유합니다. 정상으로 태어난 아이도 병이나 상처로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기형으로 태어난 경우의 부조화와는 다릅니다.

1. 성도의 균형도 이 땅에서는 흠이 있다
2. 흠의 원인: 미숙, 무지, 오판, 기질, 교육
3. 그래도 소름 끼치는 부조화는 없다
4. 근거: 사람 전체가 성화되기 때문
5. 그리스도의 형상 전체가 새겨진다

> **에베소서 4:22-24**
> 성도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통째로 입었다
>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 **골로새서 1:19**
>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원형의 충만함

요한복음 1:14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6

“은혜 위에 은혜”, 곧 그리스도의 은혜에 걸맞은 은혜가 성도 안에 생긴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하나님의 작품에는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다.”

📜 2. 뒤집지 않은 전병 — 두려움 없는 소망, 떨림 없는 기쁨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책망하신 말씀은 오늘의 위선자에게도 맞습니다. 위선자는 신앙고백은 하지만 마음이 실제로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신앙은 반은 익고 반은 날것입니다. 많은 위선자가 어떤 감정에서는 크게 체험하지만 다른 감정에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두려움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선자에게는 소망이 지나치게 확실하고, 경외와 자기 부인과 신중함은 없으며,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함께 갑니다. 부활 아침 여인들의 기쁨도 들뜬 기쁨이 아니라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한 기쁨이었습니다. 위선자는 기뻐하되 떨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오히려 거룩한 두려움과 맞서 있습니다.

1. 위선자의 신앙은 반만 익은 전병이다
2. 성도에게 소망과 두려움은 공존한다
3. 위선자는 소망만 크고 경외가 사라진다

호세아 7:8

한쪽만 익은 전병, 곧 치우친 위선의 그림

>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시편 33:18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인자를 바라는 자가 같은 사람이다

>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시편 147:11

하나님은 경외와 소망을 함께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

>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마태복음 28:8

부활 아침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 있었다

>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 3. 기쁨과 함께 가는 경건한 슬픔

성도와 위선자의 큰 차이 하나는, 성도의 기쁨과 위로에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성도는 회심할 때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자리 잡은 뒤에도 계속 죄를 슬퍼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뒤에야 오히려 자기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미워하게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아기에 비유합니다. 아기는 어두운 태 속에서는 울지 않지만, 빛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고 그 뒤로도 자주 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경건한 슬픔이 없다가, 거듭난 뒤에는 자주 그 슬픔을 겪는 것입니다. 반론도 다룹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슬픔을 대신 지셨으니 위로만 누리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그리스도께서

막지는 않으신다고 답합니다. 유월절 어린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명령이 그 그림입니다.

1. 성도는 회심 뒤에도 계속 죄를 슬퍼한다
2.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스스로 미워한다
3. 아기는 빛을 본 뒤에야 울기 시작한다
4. 대속은 회개의 슬픔을 금하지 않는다
5. 어린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다

> **에스겔 20:42-43**
>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 지난 악을 기억하고 스스로 미워한다
>
> 42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일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43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 **에스겔 16:61-63**
> 언약의 회복 뒤에도 부끄러움과 기억이 이어진다
>
> 61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62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63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마태복음 5:4**
> 성도의 삶의 방식은 지금도 애통하는 것이다
>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출애굽기 12:8**
> 유월절 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명령(본문은 장절 없이 언급)

>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 4. 사랑의 부조화 — 하나님과 이웃, 내 편과 남, 영혼과 몸

위선자의 감정은 본질부터 잘못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감정이 여러 대상을 향할 때도 이상하게 치우칩니다. 첫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크게 자랑하면서 이웃을 향해서는 다툼, 질투, 복수, 비난으로 기웁니다. 이웃에 대한 원한을 칠 년이고 십사 년이고 품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어기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는 선량하고 너그러우면서 하나님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 사랑이 자기 편, 곧 자기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만 쏠리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사납습니다. 멀리 해외의 하나님의 자녀는 좋아하는 척하면서 자기 아내와 한집 식구는 꺼리기도 합니다. 셋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는 극심한 고통을 드러내면서, 같은 처지의 다른 죄인들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에드워즈는 특정인을 위해 해산하듯 수고하는 일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고 공정하게 덧붙입니다. 다만 옛 탁월한 성도들보다 더 격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인류를 향한 겸손과 사랑은 훨씬 적다면 깊이 의심해야 합니다. 넷째,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안에서도 몸만 돌보고 영혼에 무관심하거나, 영혼을 사랑한다면서 돈 드는 몸의 필요는 외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 가르치셨고, 이어서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1. 하나님 사랑을 자랑하며 이웃은 미워한다
2. 내 편에게만 넘치는 사랑은 세리의 사랑
3. 해외 성도는 좋아하고 집안 식구는 꺼린다
4. 한 영혼만 붙들고 다른 이에겐 무심하다
5. 그리스도는 영혼과 몸을 함께 돌보셨다

> **요한일서 4:20**
> 형제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
>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없느니라

마태복음 7:12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본문은 장절 없이 암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5:45-46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신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리와 같다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가복음 6:34

무리를 불쌍히 여겨 가르치시고 이어서 먹이신, 영혼과 몸을 함께 돌보신 본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 5. 남의 죄보다 내 죄 — 낮은 계단 없는 꼭대기는 없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냉랭함과 무기력은 걱정하면서 자기 결함과 부패는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바르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도 다른 성도의 메마름을 애통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잘 보이고 가장 빨리 알아채지는 것은 자기 마음의 악함이며, 그는 그것을 가장 악하다고 여깁니다. 여기서 에드워즈는 일반 원칙을 세웁니다. 높은 단계에 이른 척하면서 더 낮은 단계에도 이른 적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자랑의 표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단순한 도덕을 넘어선 영적 삶을 말하면서 도덕적인 사람조차 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숨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자선에 쓸 재산 일부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턱에도 못 온 사람이 정상에 섰다고 생각하는 셈입니다. 같은 원리가 다른 감정에도 적용됩니다. 자기 체험을 자랑하고 남을 권면하고 싶은 충동은 주체할 수 없이 강한데, 은밀한 기도와 찬양, 하나님을 더 닮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갈망은 약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훨씬 자주 보여 주는 것은 바로 이 뒤쪽의 갈망입니다. 미움과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원리에서 나온 열심은 죄의 무게에 비례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거짓 열심은 신성모독이나 사치스러운 옷차림은 열렬히 반대하면서 정작 자신은 탐욕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 반대의 속을 들여다보면, 윗사람을 향한 시기나 자신을 해친 사람에 대한 원한이 숨어 있습니다. 또 마음의 부패를 두고는 울부짖는 척하면서 삶에서는 죄를 가볍게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열심은 남의 위험한 악에도 적절히 맞서지만 주로 자기 죄와 싸웁니다.

1. 성도에게는 자기 마음의 악이 가장 잘 보인다
2. 낮은 단계 없이 높은 단계를 말하면 헛자랑
3. 저주라도 받겠다며 지갑은 안 연다
4. 간증 충동은 강한데 골방 기도는 약하다
5. 참된 열심은 주로 자기 죄와 싸운다

> **시편 119:104**
>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곧 특정한 죄만이 아니라 모든 죄를 미워한다
>
>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 **시편 119:128**
> 같은 뜻으로, 바른 미움은 죄 전체를 향한다
>
>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절반 지점에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언덕의 정상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 6. 때에 따른 부조화 — 유성과 행성, 소나기 개울과 샘

참된 그리스도인도 늘 같은 상태는 아니며 시기마다 차이가 큽니다.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한결같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양을 따라가는 참된 신부의 마음은 불안정하거나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되어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갑니다. 반면 성령이 특별히 부어지는 시기, 비상한 섭리가 있을 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여길 때, 막 회심했다거나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에만 뜨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곧 옛 삶으로 돌아가 세상일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건강하지 못한 감정의 증거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 거울입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찬송하다가 곧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시내 산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언약을 맺고는 곧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여러 그림으로 대비시킵니다. 위선자는 소나기 때만 넘쳤다가 마르는 개울, 잠깐 타오르는 유성, 바람에 불려 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성도는 비가 오면 불고 가물면 줄지만 끊이지 않는 샘, 시냇가에 뿌리를 뻗은 늘 푸른 나무, 구름에 가려져도 궤도를 도는 행성, 굽이치고 막혀도 결국 바다로 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1. 성도도 기복이 있지만 변덕은 아니다
2. 부흥 때만 뜨겁다 식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3. 홍해의 찬송 뒤에 금송아지가 왔다
4. 위선자는 유성, 성도는 궤도 도는 행성
5.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간다

> **히브리서 13:9**
>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해야 한다, 곧 성도의 안정성

못하였느니라

욥기 17:9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점점 힘을 얻는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4:14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이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레미야 17:7-8

물가에 심긴 나무는 가무는 해에도 잎이 푸르다

7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 그는 물 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유다서 1:13

위선자를 “유리하는 별들”이라 부른다, 곧 궤도 없는 유성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서 1:12

바람에 불려 가는 구름, 곧 격렬하나 뿌리 없는 감정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참된 성도는 살아 있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와 같다."

📜 7. 장소에 따른 부조화 — 무리 속에서만 뜨거운 신앙과 골방

거짓 감정은 장소에 따라서도 치우칩니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는 크게 고양되지만,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도 신앙의 교제와 대화를 기뻐하고 거기서 큰 감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때로 모든 사람을 떠나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삭이 들에서 묵상했고,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대화하시려고 자주 산과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큰 감정은 숨기기 어렵지만, 은혜로운 감정은 모조품보다 훨씬 고요하고 은밀한 성질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도, 죄인을 위한 눈물도, 은혜의 기쁨도 은밀합니다. 그래서 감춰진 만나에 비유됩니다. 에드워즈는 성경 인물들이 가장 큰 은혜를 홀로 있을 때 받았다고 길게 짚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던 아브라함, 들에서 리브가를 맞은 이삭, 홀로 씨름해 복을 얻은 야곱, 호렙 광야와 시내 산 사십 주야의 모세,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세 제자만 데리고 오른 변화산, 요셉도 몰랐던 마리아의 수태고지, 무덤가에서 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 밧모 섬의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는 함께 모이는 공적 예배와 교제에도 마음을 크게 새롭게 하는 힘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교제에는 열심이지만 골방에는 열심이 적고, 사람들과 있을 때만 고양되고 하나님과 단둘일 때는 감화가 적다면 그 신앙은 매우 어둡습니다.

1. 무리 속에서만 뜨거우면 의심해야 한다
2. 성도는 교제도 골방도 즐거워한다
3. 은혜로운 감정은 고요하고 은밀하다
4. 성경의 큰 은혜는 대개 홀로일 때 왔다
5. 공적 예배의 가치를 부정하는 말은 아니다

> **창세기 24:63**
> 이삭이 들에서 홀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맞았다

스가랴 12:12-14

마지막 날의 참된 애통은 족속마다, 아내마다 “따로” 한다

12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3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예레미야 13:17

선지자는 백성의 교만 때문에 “은근히” 곡한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 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요한계시록 2:17

은혜로운 기쁨은 “감추었던 만나”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시편 63:5-6

가장 달콤한 만족은 침상에서, 밤중의 묵상 가운데 왔다

5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가 7:11-12

신랑은 신부를 들로 불러내어 거기서 사랑을 준다

11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12 우리가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출애굽기 3:1-2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으로 계시가 왔다(본문은 “3장 앞부분”)

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요한복음 20:11-16

부활의 기쁨에 처음 참여한 여인이 무덤가에서 홀로 주님을 만났다(본문은 20장 전체를 가리킴)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영혼이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며 움직이는 의지의 강하고 생생한 활동이며,

균형과 조화(symmetry and proportion)
사랑, 두려움, 기쁨, 슬픔 같은 여러 거룩한 감정이 한쪽만 부풀지 않고 함께 자라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위선자
신앙을 고백하고 체험도 말하지만 마음이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앙고백자
겉으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참 성도일 수도 있고 위선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화(전인적 성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부가 아니라 생각, 감정, 의지, 삶 전체를 점점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닮은 모습으로, 성령께서 성도 안에 새기십니다.

거룩한 두려움(경외)
벌이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삼가고 떨며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경건한 슬픔
들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파하는 슬픔으로, 성도 안에 꾸준히 남습니다.

새 사람
거듭남으로 입게 된 새로운 존재로, 여러 은혜와 감정이 몸의 지체처럼 어우러져 있습니다.

골방
사람들을 떠나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묵상하는 은밀한 자리입니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참된 은혜는 사람 전체를 새롭게 하므로, 그 감정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 위선의 표지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익은 전병처럼 치우친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소망, 슬픔 없는 기쁨, 이웃 없는 하나님 사랑, 자기 죄 없는 열심이 그 예입니다.
- 낮은 단계의 순종 없이 높은 단계의 영성을 말하는 것은 헛된 자랑입니다.
- 특별한 때와 사람들 앞에서만 타오르는 감정은 유성과 같습니다. 참된 은혜는 샘처럼 꾸준하고 골방에서 은밀히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 이 땅에서 성도의 균형은 불완전하니, 이 표지는 정죄의 잣대가 아니라 방향을 확인하는 나침반입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21편 · 균형이 아름답다 · 표지 10 조화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